

가금티푸스 근절을 위한 종계 · 부화장 관리 방안 논의

- 백세미 종계에 준하는 관리 방안 마련 -



위생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중)가 지난 3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선중 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중요시 되는 종계 · 부화장 방역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본고는 이날 다뤄졌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 홍보팀 -

1. 백세미용 알생산 산란계농장 방역관리 방안

1) 백세미 생산 방역 사각지대

정부에서는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의 차단을 막기위해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을 지난 2005



▲ 위생방역대책위원회 김선중 위원장

년 5월 1일부터 제정하여 종계장 단계에서의 검사·도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요령의 주요 내용은 산란을 시작하기 전인 약 20주령 이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가금티푸스에 감염된 계군을 도태하고 마리당 5,000원에 해당하는 도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백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감염율이 증가하고 백세미용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과 미등록 종계장 등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방역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2) 가금티푸스 근절위한 백세미 농가 방역 종합대책(안)

정부는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씨알'을 생산하는 백세미 알 생산용 산란계와 육용수탉종계의 관리가 종계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난 3월 '가금티푸스 근절을 위한 삼계(백

세미) 농가 방역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계장·부화장 방역실시요령'에 준하여 가금티푸스 검사를 실시해 양성계 살처분 및 해당 농가는 삼계용 알 생산 금지, △예방접종은 생균백신에 한하여 허용하고 사균백신은 금지, △삼계 계열화업체로부터 삼계용 알 생산농가 및 삼계 사육농가 목록을 제출받아 방역활동 기초 자료로 활용, △종계검정기관인 본회의 미등록 종계장 유래 종계검정 중단을 통해 종계장 등록

강력 유도 및 종계장 방역관리 강화, △가금티푸스 감염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적인 조사 실시 등이다. 정부는 이미 백세미가 산업화가 이루어져 있는 이상 백세미를 근절시키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하에 현재의 백세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란계에 백신을 허용하되 종계에 준하는 관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전체적인 정부의 백세미 관리방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고 삼계용 알 생산용 산란계 농가에 예방접종(생균백신) 허용시 지속적인 철저한 검사와 관리로 가금티푸스가 발생했거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3) 백세미 대체 품목 개발, 보급 시사

백세미의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부화장의 철저한 기록관리는 물론 종계수탉 도입계획서까지 파악하는 등 생산이력 시스템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

편, 가금티푸스 감염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적인 조사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해 무작위 선발 검사를 실시하여, 가금티푸스 발견시 도태 및 백세미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해당 농장을 포함한 계열업체까지 동일하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농가에게만 전가되는 것이 아닌 그 주체인 계열업체도 함께 피해를 감수하여 스스로 질병없는 병아리 생산과 유통을 유도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종계농가에서는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백세미가 이대로 관리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현재 축산과학원에서 삼계탕용 닭(백세미 대체품목)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백세미를 근절하고 대체품목을 개발 보급하는데 정부의 협조를 얻어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본회 이준동 회장도 이 자리에서 불합리하게 생산되고 있는 백세미를 정부에서 수출품목으로 지정해 수출장려금을 지급한 예가 있듯이 더 이상 잘못되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대체품목 개발, 보급에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

2. 미등록 종계장 및 종계장의 가금티푸스 백신 음성적 사용에 대한 대책

1) 종계장내 백신 음성적 사용 여건

본회에서 지난 2006년 10월에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국 250개 종계장에서 가금티푸스 백신을 실제 접종하고 있는 농가가 27%로 나타났고, 검역원에서 같은 해 9월 (원)종계장 60개소에 대한 생균백신 접종여부 검사 결과 원종계장은 백신접종 계군이 없었으나, 90%의 종

계장이 생균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음성적 사용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486개 종계장 중 미등록 종계장이 143개소로 30%에 가까운 농장이 등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종계장의 허술한 방역관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2) 백신능가 철저 색출 후 제재

종계장내 가금티푸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명기된 대로 접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농가에서 음성적으로 가금티푸스 백신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백신 접종후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 단계적으로 백신을 근절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백신사용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고 접종여부를 철저히 구별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이를 위해 종계에 가금티푸스 백신을 접종한 농가는 종란사용 금지 및 도태를 유도하되 도태장려금을 지급하고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미등록 종계장 종계등록 불허 및 행정적 불이익 검토

미등록 종계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종계등록을 시행토록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미등록 종계장에 대해서는 추후 종계검정을 중단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계열업체의 협조를 통해 미등록 종계장에서 생산한 병아리는 납품을 불허하도록 유도해 질서체계를 확립해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방역측면에서 미등록 종계장에서는 더 이상 종계를 생산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양계